



MONTBLANC

Inspired by performance
TIMEWALKER



Hugh Jackman and the new TimeWalker Chronograph

휴 잭맨과 새로운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새로운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는 크로노그래프의 명가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터 레이싱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montblanc.com/timewalker

Crafted for New Heights.



Official Timing Partner of the Goodwood Festival of Speed.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7 vol.161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BVLGARI
ROMA



BOTTEGA VENETA



BURBERRY



EDDIE
REDMAYNE'S
CHOICE



SEAMASTER AQUA TERRA
MASTER CHRONOMETER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매종 반클리프 아펠의 '백열리 컬렉션' 브레 이슬릿이다. 매종의 독보적인 하이 주얼리 메이킹 기술로 완성된 정교한 골드 비즈와 투명한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조화를 이루어 반클리프 아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의 00798-852-16123



- 20 **작은 도시들이 만드는 큰 담론** 독일 중부에 자리한 작은 공업 도시 카셀(Kassel), 평소에는 한적한 이 도시가 5년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북서부의 작은 대학 도시 뮌스터(Münster)는 10년마다 조각 축제를 열면서 지구촌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는다. 1백 일간의 잔치를 벌이는 이 도시들은 상업 논리에 크게 지배받지 않고 각각 5년, 10년 주기를 고수하면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개성을 지켜내왔다.
- 22 **2017 F/W MUST HAVES** 쇼핑 시즌이 돌아왔다.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2017 F/W 런웨이 속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면 이번 시즌 쇼핑에 대한 답이 보일 것. 올가을과 겨울, 당신의 옷장에 추가해야 할 일곱 가지 트렌드와 아이템 리스트.
- 24 **FIRST BAG, NEW SEASON** 한 편의 정물화로 담아낸, 테이블 위에 고요하게 놓인 이 번거, 겨울 시즌을 이끌어갈 패션 하우스의 뉴 잇 백을 지금이 감상해보자. 마치 단순한 형태와 차분한 색조로 표현한 모란디의 작품처럼.
- 28 **NEW FACES** 기존 오리지널 모델의 진화한 버전은 물론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 모델까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역사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한다.
- 30 **NEW ELEGANCE** 더욱 강렬하고 시크하게. 유아형을 새롭게 정의한 2017년 가을, 겨울의 뉴욕, 뉴 스타일.
- 38 **MAN OF TODAY** 슈트메이커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는 오늘날의 비즈니스맨에게는 어떤 스타일 존용이 필요할까? 글로벌 트렌드블러를 위한 휴고보스(HUGO BOSS)의 스마트한 F/W 컬렉션을 만나 보자. 소지함과 함께 선보이는 맨 오브 투데이(Man of Today) 캠페인을 통해.
- 40 **BUCKLE UP**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발리는 1969년 첫선을 보인 네오년 버클 장식의 '자벌'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소개한다. 볼드한 스퀘어 모티브 장식이 인상적인 뒷굽을 짚어 시크하게 연출 가능한 비부슈 스타일의 자벌 슈즈와 탈착 가능한 메탈 체인 스트랩이 함께 구성된 우아한 벨 클러치가 그것.
- 41 **GOOD-HEARTED PERFORMANCE** 혁신적인 기술력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리처드 밀이 할리우드 배우 마고 로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마고 로비의 이미지를 반영한 새로운 여성 시계 컬렉션 론칭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 42 **MAKE YOUR OWN**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배우 박신혜, 그녀의 다양한 표정만큼이나 스와로브스키만의 독특한 의미가 담긴, 총 24개의 스와로브스키 리믹스 컬렉션의 심벌릭한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보길.
- 43 **MAGICAL FIRING** 리프팅 코즈메틱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지켜온 사넬 코스메틱, 2017년,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인 밤을 타겟으로 한 르 리프트 슬리밍 마스크와 각종 오일, 필수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르 리프트 크림-오일로 올가을 메이크업 탄력 잃은 피부를 한층 탱탱하게 끌어올릴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 44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 맞서 새롭게 출시한 뷰티 제품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테스트해보았다.

FENDI.COM



Style 조선일보

Issue.161 September 2017

FENDI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ewel OF THE ANGEL

신비로운 우아함, 섬세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진주 주얼리의 향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비로운 머더오브밀로 정교한 일함브라 모티브의 드롭 네크리스를 완성한 브랜드의 상징적인 클렉신 1천1백원대 **빈클라인 아펠**, 세 가지 컬러의 골드를 다한 트리-티 모티브의 핑크· 화이트· 옐로 진주가 아우러져 클래식한 보석의 가치를 보여준다. 3천백원대 **카르미에**, 진주와 골드, 다이아몬드가 만나 크드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한 로즈 네크리스 5천백원대 **파아제**, 진주를 모던하게 재탄생시킨 혁신적인 밸런스 클렉신 링, 골드 바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우아하다. 1천백원대 **타사키**, 에티어 **베미인**



Hot spot WE BAKE ART

김환기 작가의 오리지널 판화 작품이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온다면? 이는 그저 상상 속 이야기거나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소수의 컬렉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젠 미술 작품도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고, 직접 소장해 컬렉팅하는 아트 쇼핑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트의 대중화를 꿈꾸며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즐길 수 있게 아트 쇼핑 문화의 길을 연 주인공은 바로 한남동, 삼청동, 휘라튼 서울 필라스 강남에 동지름 틈 서울옥션의 미술 대중화 브랜드, '프린트 베이커리(Print Bakery)'다. 마치 베이커리에서 빵을 고르는 일상처럼 미술품을 누구나 즐겁게 감상하고 부담 없이 소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콘셉트하에 국내에 론칭한 프린트 베이커리는 김환기, 박서보, 유영국, 아바 일마스 등 국내외 유명 작가의 디지털 판화를 통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아트 상품을 선보인다. 수준 높은 제작 공법과 작가 및 유족의 철저한 감수를 통해 태어난 판화 작품은 원화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친필 서명과 라미티드 에디션 넘버가 담겨 있어 한 장뿐이지 또 다른 오리지널로서의 소장 가치를 지닌다. 탁자에 두면 좋은 아주 작은 아트피스부터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판화 프린트 작품까지, 이 모든 작품은 색이 바래지 않는 피그먼트 안료를 사용하고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압축 아크릴 액자 방식을 통해 제작하는 것이 특징. 이 밖에도 아트 전문가가 직접 고객의 공간에 찾아가 취향과 공간 특성에 맞는 최적의 미술 작품을 제안하는 '찾아가는 아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트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나만의 공간을 특별한 작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유의 에디션 넘버가 적힌 나만의 그림을 소장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프린트 베이커리 온라인 숍(www.printbakery.com)에 접속해보자. 문의 1599-3403 에티어 권유진



Beauty HOMECARE MASTER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 크림을 비싼다고 해도 피부 깊숙이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 여기 스크레이퍼의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은 물론, 생기와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주는 마사지 디바이스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줄 최첨단 기술력의 헤어드라이어까지, 광범한 홈 케어도 특별하게 만드는 똑똑한 뷰티 디바이스를 소개한다.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미인 마그네틱헤어 15**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윤곽 케어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페이스 마사져다. 페이스 라인에 따라 밀착되는 최첨단의 각도로 피부 순환을 도와 탄력 있고 또렷한 얼굴로 바꿔준다. 혁신적인 아-리프 인피라와 코 얼 미러오네드 라인은 물론 대동맥과 어깨, 목위, 종아리까지 근육이 움직이는 어떠한 부위에도 사용 가능(7만 원). **일본 페이스의프엑스 블랙 에디션**은 남성, 특히 그루밍족을 겨냥한 시크한 블랙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이트 태피 디바이스다. 따로 크롤링이 없이 필요 없이 맨 얼굴에도 사용 가능한 이 제품은 피부 치료 효과가 입증된 레드 라이트 테라피와 프락셀(스킨) 열매-치기 복합적으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진피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 주름 및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28만 원). **코리테크 키아랩**은 필자 주름과 미간 주름 등을 끌어올리는 '신 관리와 볼 전체를 리프팅' 스킨케어해주는 '신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미용 기기로 효과가 예상(39만 원). **클라리스닉 스마트 프로그래밍 압력 매트**는 클라리스닉만의 독보적 기술인 '스마트 리프팅' 기술을 이용한 클렌징 마사지 기기로, 클렌징뿐 아니라 탄력 마사지 기능을 겸했다. 특허받은 기술로 브러시가 초당 3백 회 최우로 움직이며 미세한 물살을 만들어 피부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마치 스팀을 받는 듯 모공을 깨끗하게 클렌징해준다. 또 신생 트러블 앎을 구주의 탄력 마사지도 교차한 다음 얼굴, 목, 목덜미의 모든 골목에 밀착해 마사지하면 3분당 2만7천 회의 소닉 울파까지 능률로 주름주름과 안나 튀어나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35만 원).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는 피부 염기로 산아는 다이슨의 신제품. 4단계 온도 조절과 3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하며, 골드 샷 기능을 갖춰 극심한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한다. 가에 모발 건조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주는 획기적인 제품이다(55만 원). 에티어 **이진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Living 가치 있는 희소성을 선사한다, 럭셔리 리빙 부티크 에르미트(Hermit)

대중적인 럭셔리 제품이 아닌 극소수가 애용하는 희소성 짙은 브랜드를 선호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다. 스위스 핸드메이드 최대 브랜드 샬로시틀리에(Schlossatelier),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국민용 선물을 제작하는 도자기 브랜드 세브르(Sèvres), 1백 년 이상의 전통과 최상의 보안력을 자랑하는 금고 전문 브랜드 도틀링(Dotling) 등을 최근 한국에 소개한 라이프스타일 부티크 에르미트(Hermit)다. 단순히 상업적인 인기로 집중하지 않고 오랜 역사와 전통, 실력을 동시에 갖춘 명품 리빙 브랜드 제품을 소개한다. 영의 침소리는 뜻의 샬로시틀리에에는 참대 제작 시 합성 소재나 접착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인데스 신에서 채취한 비쿠나, 로로 피아나에서 공급받는 베이비 캐시미어, 특수 가공한 최고급 말총, 스코틀랜드 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낸 최고급 천연 소재를 사용하고, 일반 침대와 달리 특수 열처리한 티타늄 포켓 스프링을 쓴다. 1740년 설립된 프랑스 국가 인증 도자 제작소인 세브르는 프랑스와 영국 왕실,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컬렉팅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브랜드 아닌 브랜드다. '세계 최상류층 0.1%'를 위한 금고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도틀링은 미시밀로 경파까지 힘든 견고함과 단 한 번도 도난당하지 않은 보안력으로 패션계 구루 칼 라가펠트가 '궁국의 럭셔리'라고 찬사를 보낸 제품이다. 이 밖에 이탈리아 총리 자택, 두바이 왕궁, 유명 축구 선수들의 맞춤형 기구로 존재감을 발휘해온 루도비카 마스케로니(Ludovica Mascheroni)도 에르미트에서 만날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의 02-518-6680 에티어 고정연



Contest 2018 CRAFT PRIZE

전 세계 패션 필름이 주목하는 천재 디자이너 조나단 앤더슨이 이끌고 있는, 말 그대로 '오늘 가장 핫한 브랜드'인 스페인 럭셔리 패션 하우스 로에베(LOEWE)가 '2018년 크래프트 시상식(Craft Prize)'을 개최한다. 로에베에서 진행되는 크래프트 시상식은 현대 장인 정신의 독창성, 탁월함,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2018년 로에베 자네이 설립한 시상식. 이는 로에베의 본질이자 중요한 영감의 요소인 '공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상식을 통해 재능 있는 장인들의 작품을 소개·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데서 시작되었다. 최종 우승자는 상금으로 현금 5만 유로를 받게 되고, 18세 이상의 전문 장인이려면 국가,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응모 가능하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만든 작품이며, 독창적인 콘셉트가 담긴 공예품에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녹아든 작품이어야 응모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지난 시상식에는 75개 국가에서 작품 약 4천 점이 응모되었고, 그중 독일의 에른스트 캅퍼의 'Tree of Life 2'가 지난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최종 우승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우승 작품을 포함한 최종 후보 작품은 마드리드, 뉴욕에서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었고, 올해 11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가오는 제2회 로에베 2018년 크래프트 시상식의 최종 우승자는 2018년 5월 런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작품 공모는 올 10월 31일까지 응모를 받으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공예가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볼 것. 자세한 응모 방법은 크래프트 시상식 홈페이지(<https://craftprize.loew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티어 권유진



PRADA.COM 822 3443 2323



for him Selection

가을을 닮은 버건디와 지적이면서도 우아한 도시 남성의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그레이 컬러와 함께 올가을을 가장 클래식하게 물들여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TOM FORD
JASMIN ROUGE
 EAU DE PARFUM
 50 ML

삼박 재스민의 꽃향기를 원료로 사용한 자스민 루주. 50ml, 292,150원 **몰 포드 뷰티**.

레안보 데칼 바클 디테일의 모노그램 이글림스 코팅 캔버스 백백. 22X44cm, 4백만원대 **루이 비통**.

유니콘 이중 스퀘어 프레임 선글라스. 80만원대 **다타 by 나스윌드**.

양가죽 소재의 버건디 컬러 토트백. 38X37cm, 1백34만원 **발렌티노 가루바니**.

잇소라운 그레이 펠트 소재의 레노라 48만원 **클라우디 by 아이엘리아**.

GG 금장 로고기 토트백. 약 41가죽 백트. 1백58만원 **구찌**.

인터컨트 노란색으로 마감한 스텔링 실버링. 56만원 **보타가 베네타**.

그레이 컬러 카본 섬유 소재의 1백49만원 **구찌**.

샤를리노 유원형 아노드트 이상형 에디터 디자인

가죽 조각으로 완성한 버건디 모티프 키링. 32만원 **프라다**.

뽀족한 스피아드 질감의 스웨이드 슬림은. 1백3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신사의 모습을 자수 장식으로 표현한 슬림은. 60만원대 **실버토레 페라기오**.

2014년 초 이탈리아 미메라에서 영감을 받은, 세라미크 소재의 스타바카 시계. 21만원 **롤렉스 오를름**.

카무플라주 패턴의 향수. 21만원 **몰 포드**.

중발랑 1670-4810
 몰 포드 02-6905-3534
 루이 비통 02-3432-1854
 버버리 080-700-8800
 나스윌드 02-512-2225
 아이엘리아 02-6905-3964
 구찌 1577-1921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몰 포드 뷰티 02-3440-2760
 프라다 02-3218-5331
 실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발렌티노 가루바니 02-6905-3610
 까르띠에 1566-7277

버건디 코듀로이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프라다**.

www.brunellocucinelli.com

Nature is full of infinite causes
 Leonardo da Vinci



BRUNELLO CUCINELLI



GIORGIO ARMANI



for her
Selection

이번 시즌 패션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선보인 올 레드 룩 쇼핑을 계획 중이라면 올 가을 당신을 가장 우아하게 만들어줄 레드 컬러를 눈여겨보길.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브랜드의 상징적인 트라폴라이닝이 인상적인 레드 카디건 2백50만원대 롱 브라운 by 10 코르소 코모.

레드 글라피리 프레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44만원 구찌.

캔버스 소재 스트랩으로 캐주얼한 느낌은 아나타 다용도로 연출 가능한 프루팅 백, 30x22cm, 4백만원대 델보.

브랜드명을 상징하는 F 로고 이어링 가격 미정 델보.

로맨틱한 진주 장식의 엠블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스텔리오 와이즈먼.

강렬한 레드 색상의 송이(자카)족 소재 장지갑 92만원 자행시.

미트라세 패턴이 돋보이는 스카족 부츠 1백30만원대 토조.

올 시즌의 트렌드인 와이드 리본을 강조한 크리스토찬 루부탱 by 아미에르피.

양방향으로 스터브 장식이 돋보이는 스텔리오 플랫 슈즈 1백130만원 크리스토찬 루부탱.

비밀번호 잠금장치와 카드를 위한 충전 포트가 돋보이는 에스티 티 듀플링백 1백50만원 스텔리오 와이즈먼.

시원스로운 소녀의 감성을 지어내는 벨벳 플러어 원피스 7백만원대 디올.

플러워 패턴의 스티브 아이링 47만원 시몬 로사 by 본덕남.

레드 타탄 패턴이 돋보이는 52만원 롱패치 by 10 코르소 코모.

화려한 보석을 연상시키는 레드 1백47만원 자행시.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에스.티. 듀플링백 02-2106-3596
크리스토찬 루부탱 02-541-8550
구찌 1577-1921
토조 02-3438-6008
델보 02-2056-9023
자행시 02-6905-3709
루이 비통 02-3432-1854
본덕남 02-2056-1234
디올 02-3480-0104
아미에르피 02-6905-3964
스튜어트 와이즈먼 02-3479-1528

에디가족 롤링 라지 지퍼 백, 39x55cm, 5백11만원 루이 비통.



MY ARMANI TO GO

파운데이션 명가의 마침내 완성된 쿠션 마에스트로
NEW 아르마니 투 고 쿠션 SPF23 PA+++
하이 커버 - 롱래스팅 - 쿨링 에센스 - 벨벳 피니쉬
#레드쿠션 #아르마니쿠션 #투고쿠션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순수함을 지키고 더욱 강력해진 비타민C 항산화케어의 시작

아세로라 체리에서부터 온
비타민C와 더블 히알루론산 블렌드에
사용 직전에 더해지는 순수 비타민C

아티스트리의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로
더 강력해진* 비타민C의 항산화 케어를
경험해보세요

*자사 비타민C 와일드 암 대비 36% 더 강력해진 항산화력

ARTISTRY™



독일 현대미술의 경쟁력을 만드는 문화적 분권

작은 도시들이 만드는 큰 담론

올해 독일은 '아트'로 뜨겁다. 1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조각 축제가 독일 북서부의 작은 도시 뮌스터(Münster)를 물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현대미술 행사로 일컬어지는 도쿠멘타(DOCUMENTA)가 중부에 자리한 또 다른 소도시 카셀(Kassel)에서 14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도쿠멘타는 5년마다 한 번, 뮌스터 조각 축제는 10년마다 한 번 열리는 터라 올해는 10년 만의 'big year'인 셈이다. 현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소도시의 행사라지만 워낙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터라 지구촌 곳곳에서 관람객들이 모여든다. 오죽하면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으면서 여행을 즐기지 않는 자는 유죄'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까.

그렇다고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다. 도쿠멘타의 경우에는 애초에 상업성을 배제한 데다 철학적 깊이가 남다른 독일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유난히 현학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주와 이민, 안식처, 평등 같은 주제 의식도 날카롭지만, 진부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카셀에 다녀온 한 독일 갤러리스트는 "올해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이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관람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면서 꼭 전문 가이드를 동반한 투어 해볼 것을 권유했다. 올해 도쿠멘타의 주제는 '아테네에서 배운다(Learning from Athens)'. 유럽 문명의 본산이자 최근 심각한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 현대미술의 과제와 역할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카셀의 본전시(6월 10일~9월 17일)에 앞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먼저(4월 8일~7월 16일) 도쿠멘타를 진행하는 '이중 개최 방식'이 처음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문화 자본을 키우기 위해 그리스의 위기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퍼붓는 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로 향했기에 그리스의 진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을 테고, 적어도 그리스의 관광 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금서로 쌓아 올린 파르테는 사이를 건다, 카셀 도쿠멘타 산책

사실 잔사든 비판이든 온갖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그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인류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담론의 장, 그것이 카셀 도쿠멘타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이는 이 행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독일 중심부인 헤센 주에 위치한 카셀은 과거 나치 정부의 군사기지였던 관계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타깃이었기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도시다. 도쿠멘타는 이러한 전쟁의 상흔을 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기획됐고, 주창자인 아놀드 보데(Arnold Bode, 1900~1977)의 뜻에 따라 나치에 퇴폐 미술가로 낙인찍혀 박박받던 예술가들의 명예를 되살린다는 취지의 회고전 형식으로 1955년 첫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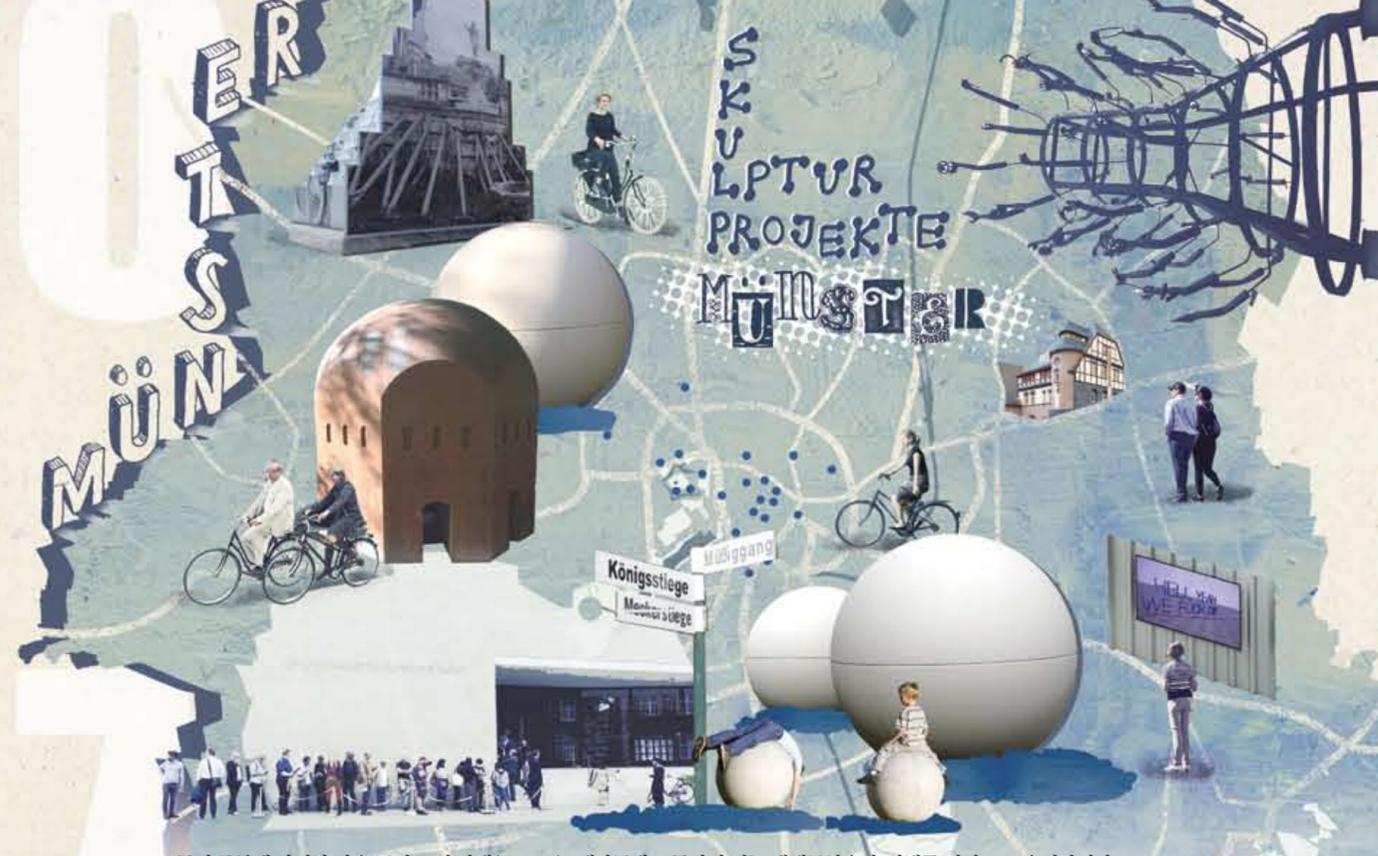
사가 치러졌다. '도쿠멘타'라는 명칭도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 새로운 현대미술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채택됐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상기하면서 카셀 도쿠멘타가 열리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건 분명 설레는 일이다. 우선 주 전시장인 프리데리치아눔 앞에서 위용을 뽐내는 '책의 신전이' 시신을 절로 잡아끈다. 아르헨티나 작가 아마르타 미누힌(Marta Minujín)이 그리스 파르테는 신전의 모양을 본떠 다양한 나라에서 모은 금서(禁書) 10만 권을 쌓아 올려 만든 대형 설치 작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란츠 카프카, 조지 오웰, 파울루 코엘류 같은 작가의 책들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 같은 다소 의외의 작품도 있는데, "세상 어딘가에서 금지된 적이 있는 서적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설명이 와 닿는다. 그 옆의 아이 공간이자 또 다른 전시장인 도쿠멘타 할레로 향하는 길목에는 거대한 파이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이불, 테이블과 소파, 라디오 등이 소박한 매무새로 들어앉아 있다. 난민들의 숙소를 재현한 하이와 K의 '우리가 숨을 내쉬 때'라는 작품이다.

스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작은 도시인 만큼 신 미술관(Neue Galerie), 그림 형제 박물관(Grimmwelt Kassel) 등 도시 곳곳의 명소를 전시장으로 쓰는 도쿠멘타에 올해는 새로운 전시 장소가 생겼다. 바로 우체국 건물을 재단장한 신신 미술관(Neue Neue Galerie)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의 '산책'이 가장 흥미로웠던 작품을 꼽자면 구 그림 형제 박물관인 빌뷔 공에서 상영된 풍자적인 영상 작품 '더스트 채널(The Dust Channel)'이 웃음을 참을 수 없게 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겨준 '백미'였다. 각종 이슈, 심지어 미술 전시조차 인종으로 묶는 '인종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형 영상 작품(벽면에 여러 인종의 얼굴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영상미가 압권이다), 신나치 단체 NUS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등 각종 만행 속에 도사리고 있는 차별주의를 되짚어보는 작품 등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품이 많다. 이 중에는 고든 후키(Gordon Hookey)라는 작가가 호주 원주민의 시각에서 서양의 침략 역사를 알록달록한 색깔과 재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한 대형 회화가 있는데, 식민지화 과정에서 공식 언어가 된 영어를 쓰면서도 영어가 진정한 모국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나 다름없다는 작가의 호소가 흥미롭다. 여기서 "이 작가의 시각에 동의하느냐"라는 큐레이터의 질문에 산책은 갑자기 토론의 장으로 변모했다. "식민지의 역사는 분명 백인이 만든 (애국된) 역사"라는 동의 어린 의견부터 "침략 방식은 되짚어봐야겠지만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호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반론, 그리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정당화는 지금도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까지... 여

9월 14일 카셀



독일 중부에 자리한 작은 공업 도시 카셀(Kassel). 헤라클레스 동상이 있는 세계문화유산 '빌헬름 언덕'으로 유명하지만 평소에는 한적한 이 도시가 5년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북서부의 작은 대도시 뮌스터(Münster)는 10년마다 조각 축제를 열면서 지구촌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는다. 1백 일간의 잔치를 벌이는 이 소도시들은 상업 논리에 크게 지배받지 않고 각각 5년, 10년 주기를 고수하면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개성을 지켜내었다. 이런 풍토는 자연스럽게 독일 현대미술의 경쟁력을 다지는 밑거름이 됐다.

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이들의 설전이 마치 '비정상회담'을 연상시키는 풍경, 도쿠멘타의 매력에 돌아나는 순간이었다.

자전거 천국 뮌스터에서 만끽하는 조각 축제

유럽에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에 좋은 도시가 많지만, 조각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뮌스터는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이 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탄 채 달리다가 휴대폰을 꺼내 위치를 확인해보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에 자리한 조각 작품을 감상하려고 바쁘게, 하지만 즐겁게 움직이는 관람객들이다. 디지털 시대의 진화 양상에 맞게 이번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앱'을 내려받아 작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원하는 작품을 표시해두면 지도를 보여주고, 현재 위치에 가까이 있는 작품 정보도 알아서 뜬다. 이처럼 첨단 앱의 도움을 빌려도 솔직히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각 작품을 찾아다니는 일은 물리적으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축제인 만큼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다들 열심이다.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씩씩하게 달린다. 기쁜 길을 헤매도 괜찮다. 과거 조각 프로젝트의 작품도 곳곳에 널려 있기에 우연히 그것들을 마주치는 기쁨도 있으니 말이다.

사실 10년제를 '너무 간격이 길다'며 바꾸자는 의견이 불거지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이 쾌적한 대학 도시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이 간격과 공백이 좋다'면서 10년제 전통을 꺾듯이 고수해왔다. 그래서 1977년을 시작으로 개최 4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올해(6월 10일~10월 1일)로 다섯 번째 행사를 맞이했을 뿐이다. 실제로 올해에는 게임 같은 3D 영상을 재치 있게 바꾸려 인간의 허무함과 무기력을 표현하는 일본계 독일 작가 히토 슈테이예를(Hito Steyerl)이라든지, 도시 곳곳에 걸쳐 8편의 영상 작품을 QR코드에 숨겨놓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한 안드레아스 분테(Andreas Bunte), 아이스링크로 활용하던 공간을 발굴 현장처럼 통째로 파헤친 다음 미디어 아트를 심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등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개성 있는 작품을 내놓은 작가들이 눈에 띄었다.

공공 미술의 모범 사례, 40년에 걸친 진화

올해 뮌스터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은 앞에서 언급한 스타 작가 피에르 위그의 앞으로의 삶 이후(After a Life Ahead). 그리고 터키 여성 작가 아이세 에르크멘(Ayşe Erkmen)의 물 위에서(On Water)다. 중앙역 근처 강 속에 징검다리를 숨겨놓아 누구나 걸을 수 있게 한 작품으로, 성경 속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굳이 최고의 화제작을 꼽는다면 아마도 엘베벨(LWI) 미술관 4층에서 진행된 그레고르 슈나이더(Gregor Schneider)의 관객 참여형 작품. 어두운 방에서 홀로 모니터 속 CCTV에 찍힌 다른 관람객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식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단 한 명씩만 출입할 수 있기에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하지만, '현대인의 불안한 자화상'이라는 찬사와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듯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미디어 아트, 설치, 퍼포먼스 등 조각의 한계는 어디까지냐고 묻는 듯 다양한 세계를 펼쳐 보인다. 일상에 스며든 수준 높은 공공 미술의 좋은 예로 꼽힐 만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처음에는 '산통을 겪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1975년 영국 출신의 추상 조각 대가 헨리 무어의 작품이 설치되자 뮌스터 시민들이 '울퉁불퉁한 추상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곧 모두의 담론이 필요한 의제로 부상했다고 한다. 공공 미술이 미술관을 벗어나 대중의 일상이 펼쳐지는 환경에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벌어진 것이다. 다양한 예술적 개성과 감수성을 지닌 작품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혼재할 수 있었던 데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진화가 뒷받침되었던 셈이다.

예술은 결코 국가들이 경쟁하는 올림픽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작은 도시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역사성을 보노라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달리 보이는 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현대미술의 강점을 국가 차원의 문화적 분권(decentralization) 정책이라고 말한다. 런던, 파리, 뉴욕처럼 대도시 특유의 '브랜드' 파워에서는 뒤질지 모르지만 지역성과 맞물려 특유의 특성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키워온 문화의 저력이 상당하다는 해석이다. 독일 문화 정책을 연구해온 김화민 씨는 "거대한 문화 도시는 없지만 (독일에는) 작은 도시들도 고유한 문화 전통과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문화 연방주의'는 시장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체제와 예술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여건을 뒷받침해준다고 설명한다. 지역 이주주의나 정치 논리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말이다. 마침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관과 작가도 독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예술 만세'라는 뜻의 '비바 아르테 비바(Viva Arte Viva)'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말까지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상은 독일 국가관이 가져가면서 이 공간을 강렬한 퍼포먼스로 요리한 작가 안네 임호프(Anne Imhof)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타로 떠올랐고, 개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황금사자상도 독일 출신의 77세 노장 프란츠 에르하르트 발터(Franz Erhard Walther)에게 돌아갔다. 단지 상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유럽 일대를 다니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신성 중 베를린이나 뒤셀도르프 등 독일 출신(국적이 아니라 활동 무대)이 많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닐 듯하다. **IS** **에디터 고영민**

2017 F/W Must Haves

쇼핑 시즌이 돌아왔다.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2017 F/W 런웨이 속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면 이번 시즌 쇼핑에 대한 답이 보일 것. 올가을과 겨울, 당신의 옷장에 추가해야 할 일곱 가지 트렌드와 아이템 리스트.

Trend 1. Plaid Play '체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펑크, 프레피 룩, 1970년대 빈티지 체크, 1990년대 그린지 룩, 스코틀랜드의 전통 체크 패턴까지 체크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영원불멸의 클래식 패턴 중 하나지만, 이번 시즌엔 어엿한 하나의 트렌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보테가 베네타, 루이 비통, 칼빈클라인, 샤넬, 마크 제임스, 구찌, 칼로에는 1970년대 레트로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체크와 격자무늬를 기묘한 재킷과 코트를 선보였고, 에르메스와 미스니, 구찌, 마르니 역시 클래식한 체크에 신뜻한 컬러를 더한 팬츠와 원피스로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룩을 완성한 것. 패턴 자체가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체크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지만, 스타일링 고수라면 크기와 컬러가 서로 다른 체크를 믹스하거나 스트라이프, 플라워 등 다른 패턴과의 과감한 믹스 매치 스타일링에 도전해보도록.

Trend 2. Victorian Collars 여름 내내 오픈 솔더로 아름다운 목선과 어깨 라인을 마음껏 드러냈던, 올가을엔 빅토리아 무드의 하이넥 칼라로 고전미가 느껴지는 우아함을 발산해보자. 발렌티노, 겐조, 구찌, N21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네크라인을 높은 하이넥 칼라의 블라우스와 드레스를 대거 선보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상투하고 로맨틱한 무드를 실러 하이넥 칼라와 소매를 과장되게 부풀린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를 모던하고 담백하게 풀어낸 스타일도 눈에 띈다. 이 중 베스트로 꼽고 싶은 룩은 섬세한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는 하이넥 칼라로 여성미를 극대화한 발렌티노의 드레스. 아름다운 하이넥 디테일과 소재, 패턴, 실루엣 등 전반적으로 로맨틱한 빅토리아 무드를 잘 살린 드레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에 다소 상반되는 와이드한 레이스업 부츠를 매치해 진부하지 않은 매력적인 룩을 완성한 것이 스타일링 포인트다.

Trend 3. Men's Coat 올겨울 단 하나의 코트를 구입한다면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남성의 맞춤복에서 착안한 정교한 테일러링과 고급스러운 소재에 집중한, 각진 어깨라인이 돋보이는 테일러드 코트다. 남성미가 느껴지는 파워 숄더 디자인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에도 1980년대 레트로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성 슈트와 재킷, 코트 등에서 많이 선보였는데, 특히 이는 발목 가까이 내려오는 긴 기장, 여유로운 오버핏 실루엣의 코트에서 전면목을 발휘한다. 흡사 남성 코트를 연상시키지만, 자로 잰 듯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루엣으로 도회적이면서 카리스마 있는 여성미를 동시에 드러내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가장 모범적인 예시로, 딱 떨어지는 어깨 라인이 돋보이는 테일러드 코트를 무심한 듯 시크하게 스타일링한 로에베의 룩을 참고할 것.

Trend 4. Lady in Red 2017 F/W 패션 워크가 끝나갈 무렵 수첨에 가장 크게 작업들은 멘트는 바로 '올가을엔 레드 컬러 아이템을 구입할 것이었다. 레드 컬러 아이템을 선보이지 않은 디자이너를 찾기 어려울 만큼, 주요 패션 하우스의 런웨이는 온통 레드빛으로 물들었다. 그것도 단순히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펜트, 토츠, 질 샌더, 막시마라 등에서 선보인 레드 컬러 룩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레드 톤을 사용한 올 레드(All red) 룩이 등장한 것. 이는 분명 과하고 부담스러운 코디네이션임은 틀림 없지만, 고혹적이면서 가볍지 않은 레드 컬러를 사용해 과하다는 말보다는 우아하면서 세련되고 시크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올 레드 룩은 일상에서 시도할 수는 없겠으나, 레드 컬러의 코트와 부츠만큼은 이번 시즌 하나쯤 구입해야 할 아이템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Trend 5. Shearling Thing 이번 시즌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을 꼽으라면 과감한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사이링 파다. 테디 베어 인형처럼 곱슬곱슬하고 짧은 사이링 파에 딱한 컬러감을 더해 한층 시원스럽고 부드럽게 중화한 스타일로,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 퍼를 절고 웨어러블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올겨울, 빈티지 데님에 스니커즈를 신고 에르메스의 컬러 블로킹 사이링 재킷을 무심하게 걸치는 것 상상만으로도 너무 멋지다.

Trend 6. The Puffers 전형적인 스포티한 패딩 디자인이 식상해질 쯤나, 한 것 부풀린 오버사이즈 패딩 아우터의 등장이 이렇거나 반가울 수가! 특히 포말한 오피스 룩에도 스타일링이 가능하게 매치할 수 있는 오버핏 코트 디자인의 패딩 아우터는 특유의 스포티함을 여성스럽고 클래식하게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스타일링 역시 패딩과는 상반되는 실크 드레스, 허라인 스커트 등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함께 매치하는가 하면, 패딩에 리얼 퍼 디테일을 더하거나 벨벳, 실크 등 여성스러운 소재를 접목해 패딩이 더 이상 스포츠 웨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Trend 7. Volume Knit 이번 시즌 니트 웨어를 고를 땐, 컬러, 패턴보다 구조적인 실루엣에 집중할 것. 루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살린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는 니트는 아우터를 겹치지 않아도 니트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여성스러운 플라워 스커트에 매치한 말렌시아기의 우아하고 이국적으로 레드 컬러 터틀넥 니트와 여성의 관능적인 허리 라인을 강조한 루이 비통의 화이트 볼륨 니트는 스커트, 팬츠, 원피스와 레이어드해도 모두 멋스러워 올가을 위시리스트 1순위에 더더 권유!



Plaid Play_ BOTTEGA VENETA

Victorian Collars_ VALENTINO

Men's Coat_ LOEWE

Lady in Red_ FENDI



Shearling Thing_ HERMÈS

Shearling Thing_ PRADA

The Puffers_ MARNI

Volume Knit_ LOUIS VUITTON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G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1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LOEWE

(왼쪽부터) 의류에 사용하는 프라다의 블루 태그를 모티브로 한, 새롭게 선보이는 에티켓 백. 기존 프라다 슈즈와 의류에 숨겨져 있던 블루 라벨을 백 전면부에 드러낸 이 백은 액세서리의 본질적인 장식을 메인 아이코ном으로 표현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33x23cm, 2백56만원 **프라다**. 큼직한 사철 백을 연상시키는 고전적인 실루엣이 돋보인다. 단순하면서도 눈에 띄는 컬러로 가독성 장식을 완성한 클리어 백. 38x30cm, 2백73만원 **렌다**.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이 포인트인 최상급 악어 가죽 소재 디오네 백에 이번 시즌 새로운 컬러를 입혀 선보인다. 25x19cm, 1천9백80만원 **클롬보 비아 델라스피가, 티포트 세트 에르케스**.



first Bag, New Season

한 편의 정물화로 담아낸, 테이블 위에 고요하게 놓인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을 이끌어갈 패션 하우스의 뉴 잇 백을 지긋이 감상해보라. 마치 단순한 형태와 차분한 색조로 표현한 모란디의 작품처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 유현정
이진진, 이서영

(왼쪽부터) 독일의 남부 지방과 오스트리아의 오데사 지역의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강렬한 레드 컬러가 돋보인다. 1970년대 스티브 맥퀸의 시계줄에서 영감을 받은 미러링세퍼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판칭 스트랩 핸들이 눈길을 끄는 미니 로드 백. 31x22cm, 4백98만원 **미러링세퍼**. 똑 떨어지는 스퀘어 세이프 디자인에 금속 버클 장공장치로 포인트를 준 심플한 디자인의 루시 백. 크로스와 솔더로도 연출 가능한 체인 스트랩을 더해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24x18cm, 1백만원대 **아이그너**.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이 매력인 카프 스카인으로 제작했으며 페라기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골드 간지오 클로저를 매치한 톱 핸들 디테일의 소프트 스피어 백. 39x21cm, 2백4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기오**. 워번 모두 맨스크.



Black Calf and Oro Suede Hammock Bag with Red Intarsia Dots, 2017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 43개의 가죽 조각으로 만든 유연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퍼즐 서클 백, 이번 시즌 이 라인에 처음 추가된 도트 무늬의 시클 패킷은 로에베인의 고난도 가죽 공예 기술인 레더 마크 트러 기술력으로 완성했다. 28x20cm, 3백90만원대 **로에베**, 브랜드의 시그니처 더블 T 디테일의 잠금장치기 포인트이며, 앞쪽의 아웃 포켓과 탈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더한 더블 T 시클 백, 21x18cm, 2백20만원대 **토즈**, 모노그램 리버스 캔버스와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을 믹스하고, 이번 F/W 시즌 컬렉션을 맞아 판칭 디테일의 클래식한 브로그 장식을 더해 선보이는 포셋트 메티스 백, 24x19cm, 3백10만원대 **루이 비통**, 브랜드 시그니처 백인 스냅 샷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한, 매력적인 직사각형에 마크 제이콥스를 상징하는 새로운 더블 J 로고로 완성한 핫 샷 백, 10x17cm, 49만원 **마크 제이콥스**.



(왼쪽부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인트레치아토 패턴을 인쇄된 얇게 표현한 카를 루이스 소재의 나트 워크가 돋보이는 클라치, 25x13cm, 3백만원대 **보티가 베네타**, 견고한 스가죽과 파이론 소재의 더블 플랩이 포인트로, 곤충 모티프 애플 장식과 뱀무 핸들이 어우러진 오달리아 백, 31x21cm, 5백70만원대 **구찌**, 기존 오리지널 모델보다 한층 활기찬 한들과 직어진 실루엣으로 선보이는 블리드 1923 백, 이번 시즌엔 특별히 컬러풀한 스트랩도 함께 출시된다, 32x24cm, 9백만원대 (스트랩 별도 1백만원대) **에르메스**, 에디터 **이지엔**

프라다 02-3218-5331
 펜디 02-2096-9023
 풀플로 비아 델라 스피가 02-511-2192
 미라임세피 02-3467-6625
 아이디너 02-546-7764
 살비토레 페라카모 02-3430-7854
 로에베 02-6905-3470
 토즈 02-3438-6008
 루이 비통 02-3432-1854
 마크 제이콥스 02-3213-2548
 보티가 베네타 02-3438-7601
 구찌 1577-1921
 에르메스 02-542-6622
 맨스크 070-7475-4254



fabianafilippi.com

Hyundai Main / Coex / Mokdong / Daegu / Ulsan / Pangyo **Shinsegae** Main / Gangnam / Gyeonggi / Daegu
 Galleria East / Timeworld **AK Plaza** Bundang **Lotte** Avenuel World Tower
 +82 2 6960 0831

New faces

기존 오리지널 모델의 진화한 버전은 물론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 모델까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역사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 **몽블랑 1858 오토매틱 듀얼타임** 1930년대의 전형적인 미니멀바 타임피스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스텝과 브랜지가 조화를 이루는 케이스를 사용해 특유의 반타지 스타일을 강조했다. 이는 몽블랑 시계 컬렉션 역사상 최초로 브랜지를 사용한 타임피스로, 고전적 디자인의 핸즈, 황금 이라바이아웃, 클래식한 모양의 크라운과 다이얼을 둘러싼, 철도 궤도를 연상시키는 눈금 등 브랜드의 역사적인 디자인 코드를 담은 반타지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준다. **69665만원**, 문의 1670-4810 **파니 CT60 크로노그래프** 1945년 미국 알타 회담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착용한 티파니 워치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지름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블랙 솔레이 디자인, 스페셜 푸드 인텍스의 상용화로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89930만원**, 문의 02-547-9438 **피아제 워치메이커 60주년 컬렉션** 전혀 없는 일은 두께와 순수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유아형을 새롭게 정의하는 울트라-씬 워치 일러스트로, 옐로 골드 케이스와 영롱한 그린빛 다이얼, 그린 컬러 악티비즘 스트랩을 장착한 이 워치는 2백60개의 개별 변화가 부여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3천1백만원**, 문의 02-540-2297 **에거 르몽트르 마스터 울트라 싼 문** 기쁨이 느껴지는 생바나이트 그레이 컬러 다이얼, 그 위에 장식된 브랜드의 상징적 캄플리케이산인 문패이즈와 날짜 인디케이터가 조화를 이룬다. 이 모든 기쁨이 두께가 1cm도 채 되지 않는 얇은 케이스에 적용된 이 모델은 파워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준다. **2천4백만원**, 문의 02-3449-5912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인스트림 럭셔리 스포츠 워치를 표방하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컬렉션.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하고 견고한 팔각형 베젤의 육탄 케이스는 그 어떠한 충격에도 분해되지 않도록, 오데마 피게만의 특별한 기술력을 통해 8개의 스크류인으로 고정된 것이 특징. **18K 레드 골드** 소재의 직경 41mm 케이스에 그린드 타임즈와 패턴을 새긴 브라운 컬러 다이얼을 매치, 남성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자아낸다. **6천만원**, 문의 02-3479-1809 **오메가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새로운 아쿠아테라 컬렉션은 더욱 수준 높은 정확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기존 액시리 보트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다이얼을 수직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비문 티크 패턴의 다이얼로 간결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6백만원**, 문의 02-511-5797 **블가리 워치 루마** 블가리 워치의 상징적인 오토의 팔각형 케이스 특유의 견고함은 유지한 채,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미세하게 다듬은 곡선 형태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오토 루마 워치. 남성 손목에 이상적인 41mm 케이스 사이즈로 매일 착용해도 부담 없다. **8백만원**, 문의 02-2056-0171 **에티어 배미전, 이자면**



녹용에서 천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천녹



(왼쪽부터) 네이비 컬러 이상 재킷,
 시스루 롱스커트, 스틸레토 힐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블랙 & 화이트 트윈드
 재킷과 스커트, 레터링 화이트 톱,
 블루 스웨이드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샤넬**.

New Elegance

더욱 강렬하고 시크하게,
 우아함을 새롭게 정의한 2017년
 가을, 겨울의 뉴 룩, 뉴 스타일.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왼쪽부터 순서대로) 니트 베스트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베이지 터틀넥 톱, 와이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막시마라**, 베이지 니트 카디건 5백38만원, 브라운 컬러 벨트 가격 미정, 니트 드레스 1백88만원 모두 **파비어나 필리피**, 버블 디테일 앵클부츠 가격 미정 **토즈**,
 네크라인 디테일 화이트 셔츠 1백78만원, 핀스트라이프 재킷과 팬츠 가격 미정 모두 **파비어나 필리피**, 블랙 슈츠 1백39만원 **마이클코어스 칼렉션**, 그레이 핀스트라이프 롱 코트와 스커트, 니트 터틀넥 톱 모두 가격 미정 **막시마라**, 블랙 슈즈 1백25만원 **마이클코어스 칼렉션**.





(왼쪽부터 순서대로) 실버 니트 톱 87만8천원, 레오파드 스카트 99만8천원 모두 **이자벨 마랑**, 블랙 라이다 재킷 9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1백만원대, 레더 스카트 9백만원대 모두 **토즈**, 베이시 니트 티셔츠 톱, 트랜치코트, 핀스트라이프 화이트 맨츠 모두 가격 미정 **막스마라**, 레오파드 원 숄더 드레스 2백78만원 **이자벨 마랑**.

(왼쪽부터 순서대로) 바건디 니트 카디건, 블랙 레더 벨트, 브라운 스케이 스카트, 레오파드 웨지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실버 이어링 13만6천원 **아야노**, 아이보리 컬러 블라우스 23만5천원, 체크 패턴 베스트 62만5천원, 태슬 장식 체크 스카트 44만5천원 모두 **레트버티**, 핑크 엘리게이터 가죽 토트백 가격 미정 **콜롬보 비아 델라스피가**, 플라워 장식 앵글 슈즈 2백88만원 **구찌**, 스카이 블루 니트 톱 94만원, 화이트 스카트 가격 미정 모두 **몽클레르**, 니트 사이언이 부츠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즈먼**.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 장식 블라우스 2백22만원, 니트 카디건 6백40만원, 플라워 패턴 스커트 2백22만원, 벨트 1백만원대, 오렌지 컬러 메리제인 슈즈 1백15만원, 볼드한 진주 링 61만원 모두 **구찌**, 레드 라이더 재킷 8백만원대, 레드 팬츠 4백만원대 모두 **토즈**, 골드 아이링 132만원 **아이노**, 화이트 앵글 슈즈 가격 미정 **에르메스**, 플라워 패턴 재킷 4백52만원, 팬츠 1백68만원, 골드 스타트 장식 블랙 펌프스 1백42만원 모두 **구찌**, 스카이 블루 드레스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주얼 장식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 장식 화이트 셔츠 2백27만원, 그레이 캐시미어 드레스 3백59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사이하이 부츠 1백78만원 **주세페 자노티**, 페이즐리 패턴 롱 드레스 가격 **에르메스**, 실버 아일릿 디테일의 펌프스 1백25만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그레이 체크 재킷 2백70만원, 체크 스커트 1백60만원, 블랙 화이트 벨트 가격 미정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아이보리 니트 롱 가격 미정, 카키 컬러의 실카한 팬츠 1백85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블랙 스틸레토 힐 가격 미정 **디올**.



(왼쪽부터 순서대로) 블랙 테일러드 점프 슈트, 레드 벨트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레이스 디테일 셔츠, 코트, 팬츠, 골드 벨트, 패더 장식 브로치, 블랙 메리제인 슈츠 모두 가격 미정 **랑방**, 블랙 초커 네그리스, 블랙 재킷,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을**, 블랙 케이프 가격 미정 **다을**, 블랙 셔츠 1백60만원, 블랙 레더 스카트 3백00만원 모두 **마이클코어스 칼렉션**.

(오른쪽부터) 블루 패턴 재킷 5백40만원, 비즈 장식의 오렌지 컬러 카디건 가격 미정, 그린 펠트 스카트 1백70만원, 골드 주얼 장식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그린 레더 트윈트 재킷 5백40만원, 니트 브라톱 가격 미정, 비즈 플라워 장식의 펠트 스카트 가격 미정, 골드 주얼 장식 메리제인 슈즈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골드 아이링 35만원 **잉크**.



헤어 박선호
메이크업 홍현정
모델 배윤정, 정소현, 현지은, 엘리스(YG K PLUS)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831
- 쥬세페 지노티 02-543-1937
- 마이클코어스 칼렉션 02-546-6090
- 다을 02-3480-0104
- 막스마라 02-3467-8326
- 피비이나 필리피 02-6960-0843
- 토즈 02-3438-6008
-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 랑방 02-3438-6186
- 구찌 1577-1921
- 아이노 070-8128-3506
- 에르메스 02-544-7722
- 레트버티 02-3449-5977
- 몽클레르 02-514-0900
- 스튜어트 와이츠먼 02-6905-3991
- 샤넬 060-200-2700
- 이자벨 마랑 02-516-3737
- 프라다 02-3218-5331
- 잉크 070-8733-2237
- 콜롬보 비아 엘리스피가 02-511-2192

man of Today

수트케이스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는 오늘날의 비즈니스맨에게는 어떤 스타일 전략이 필요할까? 글로벌 트래블러를 위한 휴고보스(HUGO BOSS)의 스마트한 F/W 컬렉션을 만나보자. 소지섭과 함께 선보이는 맨 오브 투데이 (Man of Today) 캠페인을 통해.



● sponsored by HUGO BOSS



1, 5 휴고보스의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의 모델, 배우 소지섭, 2, 3 휴고보스는 오래도록 남성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온 클래식한 브랜드다. 4 여행가들에게 영감을 받아 실용성을 높인 새로운 수트 디자인.



여행가들에게 영감을 얻은, 소지섭의 휴고보스 수트

사진 속 소지섭의 딱 떨어지는 수트 핏을 보면 역시 휴고보스라는 감탄사가 나온다. 휴고보스는 배우 소지섭과 함께 S/S 컬렉션부터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올가을에도 새로운 룩을 착용한 배우 소지섭을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캠페인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 휴고보스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은 지금 가장 멋진 남성상은 무엇인지, 현대적인 매력을 지닌 남성이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휴고보스의 수트로 표현한다. 오래도록 하이엔드 남성복 분야에서 클래식한 매력과 트렌디한 감성을 보여준 휴고보스가 캠페인 모델로 배우 소지섭을 선택한 것은 매우 놀라운 파급력을 가져왔다. 위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휴고보스의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대변한다. 남성복에 관해 오랜 노하우를 지닌 브랜드이기에 이러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끔 잊고 지내는 남성의 매력, 남자의 옷에 대한 생각을 일깨운다. 멋스러운 수트로 몸을 감싸고 남자로서의 매력과 그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캠페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기때, 배우 소지섭과의 만남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상징성을 지닌 휴고보스가 현대적인 남성을 이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한때는 수영 선수, 패션모델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정상의 배우가 된 한국의 톱스타 소지섭과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년 멋진 모먼트를 만든다. 아이코닉한 남성 수트 브랜드이자 남성다운 우아함을 상징하는 휴고보스의 아시아 앰배서더가 되어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을 선보이는 소지섭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휴고보스와 배우 소지섭의 만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캠페인 스토리를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브랜드 가치를 지켜온 휴고보스는 국내에서도 많은 남성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젊은 감성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가는 보기 드문 남성복 브랜드로, 성공한 남성은 물론 좋은 옷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의 선택이 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올해 배우 소지섭과 새롭게 선보이는 컬렉션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활동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세계를 항해하는 여행가들에게 영감을 얻은 만큼 보다 다이나믹한 느낌을 준다. 활동성과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모험가의 스타일이 휴고보스의 뛰어난 테일러링을 통해 군더

기 없이 스타일리시한 룩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번 F/W 컬렉션은 활동성과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모험가의 스타일에 휴고보스의 사프한 테일러링을 더해 부드러움과 럭셔리함, 품격, 그리고 스포티함을 조화롭게 겸비한 젊어진 보스 맨(BOSS MAN)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일과 레저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시대, 현대의 비즈니스맨은 놀이를 하듯 일에 몰두하고, 쉬면서도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따라서 주중과 주말 모두 활용도가 높은 룩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적이고 모던한 휴고보스의 예술적인 테일러링

이번 시즌 보스 맨의 시작점이자 중심에 있는 수트는 테일러링 기법과 1980~90년대 보스 수트에 각각 기반을 두고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해석되었다. 디테일에 대한 열정과 완벽한 마무리감, 한 벌의 재킷에 감추어진 휴고보스의 테일러링 기술은 일반 알수록 경이롭다. 해부학적 분석을 통해 얻은 인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하기에 타 브랜드에서 만나볼 수 없는 독보적인 피팅감이 담겨 있다. 여기에 정밀한 커팅, 뛰어난 구조, 디테일과 완성도에 대한 집념이 더해져 놀랍도록 완벽한 실루엣과 착용감을 선사하며 동시에 스포츠 웨어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또 소지섭이 입은 도시적인 매력을 담은 깔끔한 수트는 휴고보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템인 울 코트와 함께 입으면 우아한 느낌이 배가된다. 수많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휴고보스의 핏과 매력을 고스란히 담았다. 사회 생활에서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남자의 진부복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트를 선택할 때 휴고보스의 룩을 떠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생 수트가 갖추어야 하는 브랜드 가치, 디자인,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소지섭이 착용한 사진 속 느낌만으로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컬러 팔레트는 다크 네이비, 차콜 그레이, 블랙, 브라운 컬러 등이 믹스되어 현대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소지섭이 착용한 보스 맨의 새로운 F/W 컬렉션은 보스 맨이 어디를 여행하든, 스타일과 실용성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의 휴고보스 상담점 02-515-4088 에디터 배미진

buckle Up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발리는 1969년 첫선을 보인 네모난 버클 장식의 '자넬'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볼드한 스퀘어 모티브 장식이 인상적인 뒹굽을 꺾어 시크하게 연출 가능한 바부슈 스타일의 자넬 슈즈와 탈착 가능한 메탈 체인 스트랩이 함께 구성된 우아한 벨 클러치가 그것으로, 올가을 당신의 스타일에 클래식한 품격을 채워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의자 위에 놓인 제품부터 시계 방향으로) 판매 중인 페이퍼트레 스타드 장식을 더한 자넬 스타드 블랙 1백25만원대, 레오파드 패턴이 돋보이는 송차가죽에 골드 버클을 가미한 벨 클러치 2백19만원, '해피 발리' 무드를 보여주는 히트와 같은 포키 모티브와 벨, 입술 등의 장식이 위트 있는 자넬 포키 1백7만원, 매끈한 소가죽에 실버 버클을 매치한 퍼플 벨 클러치 1백47만원, 자넬 스타드 화이트 1백25만원, 유연하고 매끈한 소가죽에 골드 버클을 더한 블랙 벨 클러치 1백47만원, 매끈한 아이보리 소가죽에 골드 버클로 세련된 강조한 자넬 슈즈 89만원, 레오파드 프린트 버전 자넬 슈즈 1백17만원, 부드러운 감촉의 블랙 벨벳 소재 자넬 슈즈 89만원 모두 발리, 문의 02-3467-8935 에디터 이지연



가구: 발리 하우스

● sponsored by BALLY

포토그래퍼: 박건우

good-hearted Performance

혁신적인 기술력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리처드 밀이 할리우드 배우 마고 로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마고 로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새로운 여성 시계 컬렉션 론칭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리처드 밀의 새로운 파트너, 배우 마고 로비

앰배서더는 브랜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널리 알려진 인물을 발탁하곤 한다. 그러나 리처드 밀은 홍보대사로 단순히 유명인을 선정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이란 표현으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인연을 맺은 파트너는 브랜드나 특정 모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개발에도 참여하기 때문.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의 대표적인 예는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로, 리처드 밀은 세계 최고의 테니스 스타이자 자사 파트너인 그를 위해 10,000G의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초경량 워치 RM 27-03을 제작했다. 라파엘 나달은 실제로 그 시계를 손목에 차고 경기를 치렀고, 리처드 밀은 이외에도 그를 위해 매 시즌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 헌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성 컬렉션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 마고 로비를 선정하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리우드 배우로선 처음 리처드 밀의 파트너로 발탁한 데다, 리처드 밀이 지난 2014년을 '여성'의 해로 선언함에 따라 여성 위치를 리처드 밀 컬렉션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호주 드라마 <네이버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본격적인 연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이후 2013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에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상대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연으로 호평받았고,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의 <레전드 오브 타잔>에서 제인 역할을 소화하며 그녀만의 필모그래피를 탄탄히 쌓아왔다. 또 많은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 <수사사이드 스퀘드> 할리 쿨을 통해 강한 개성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리처드 밀은 앞선 경우들처럼 새롭게 파트너가 된 마고 로비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계를 함께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작품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의 연기에 대한 열정처럼, 마고 로비는 리처드 밀 시계의 제품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처드 밀 브랜드의 예술적 감각과 혁신적 디자인에 늘 감탄해왔는데, 이렇게 리처드 밀 패밀리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꿈꾸는 디자인 모델은 리처드 밀의 비전을 구체화한 아름답고 독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자랑하는 타임피스예요"라며 리처드 밀과 마고 로비가 함께할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리처드 밀 또한 그녀의 창의력 넘치는 에너지와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리처드 밀의 디자인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큰 만족을 표했다. 이번 협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디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모델이 거두어들이고픈 수익을 도움이 필요한 호주의 아이들에게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 케어' 재단에 기부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녀의 세심한 감성과 리처드 밀의 조합으로 어떤 매혹적인 시계가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sponsored by RICHARD MILLE



1 리처드 밀의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된 마고 로비. 2 스크래치 내성이 강한 블랙(TZP) 세라믹 베젤 케이스의 RM 037 레이디스 워치. 3 화이트(A2P) 세라믹 베젤 케이스 버전 RM 037 레이디스 워치.

여성을 위한 우아한 기계식 워치, RM 037

이번에 리처드 밀이 공개한 화보에서 마고 로비의 손목에 감겨 있는 RM 037 레이디스 워치는 원래 남녀 공용이던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시계다. 브랜드 고유의 기술적 특징과 세세한 디테일, 그리고 아름다움과 우아함 등 리처드 밀의 명성을 높인, 여성을 위한 고급스러운 기계식 워치로 제안한 것. 다 이일에 리처드 밀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기적 형태의 토너형 케이스 모티브 창을 더했으며,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스크래튼 디자인의 화려함을 더욱 부각했다. 케이스 양쪽에 물방울을 연상시키는 2개의 푸셔가 위치하며, 10시와 11시 사이에 있는 날짜 조정 푸셔와 4시와 5시 사이에 있는 기능 선택 푸셔를 사용해 기능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 RM 037의 케이스는 18K 레드 골드 케이스 밴드와 내구성이 강한 화이트 혹은 블랙 세라믹 베젤 케이스, 또는 전체가 18K 레드 골드나 화이트 골드 소재인 것으로 구성된다. 취향에 따라 다이아몬드, 였닉스, 머티리얼 등 다양한 스톤으로 다이얼을 장식할 수 있으며, 리처드 밀 청담 부티크를 통해 주문 제작 가능하다. 문의 02-512-1311 에디터 이지연



3



포토그래피 안주영(인물) 박인주(제품)

24가지 제품을 연결해 수만 가지에 달하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특징인 리믹스 컬렉션은 작달미들은 마그네틱 클로저로 완성한 크리스탈 볼을 서로 연결해, 브레이슬릿뿐 아니라 네크리스, 초커, 헤어밴드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각 11만원대 모두 **스와로브스키**.

Make your own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배우 박신혜, 그녀의 다양한 표정만큼이나 스와로브스키만의 독특한 의미가 담긴, 총 24개의 스와로브스키 리믹스 컬렉션의 심벌릭한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보길.



사랑과 평화, 스마일 이모지, 이름 아이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심벌릭한 제품뿐 아니라 크리스탈과 진주 등의 소재로 구성된, 다양한 조합을 통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개인의 취향과 룩에 따라 로맨틱하거나 클래식한 분위기 또는 페미니한 무드를 풍길 수 있는 리믹스 컬렉션 브레이슬릿 각 11만원대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이지연**



● sponsored by SWAROVSKI

리프팅 케어의 강자, 샤넬 리프트

수많은 안티에이징 화장품 중 만능 성분과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면서 개개인의 피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라인을 찾았다면, 해답은 샤넬 코스메틱의 '르 리프트'다. 무엇보다 '샤넬'이라는 탄탄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오랜 연구와 투자 끝에 탄생시킨 리프트 인클, 제롬의 콘센트, 성분과 효능, 더불어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샤넬의 우아함과 견고한 완성도가 단연 돋보인다. 피부 노화는 타고난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노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을 화장품업계 최초로 르 리프트에 접목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데, 이로써 완성한 르 리프트 라인의 핵심 활성 성분인 3,5-DAs는 젊음을 관여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해 더욱 탄력 있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바뀌는 획기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이다. 이 강력한 활성 성분으로 지속적이고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르 리프트 라인에 2013년 세럼과 크림을 시작으로 아이 세럼, 아이 크림, 마스크, 미샤지 마스크, V 플래쉬 등 다양한 타입의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스킨케어 선택에 까다로운 여성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더욱 강력하고 완벽해진 라인업

샤넬은 이번 시즌 이 파워풀하고 매력적인 안티에이징 라인에 더욱 강력해진 새로운 르 리프트 컬렉션을 추가 했는데, 바로 르 리프트 스킨-리커버리 슬리핑 마스크와 르 리프트 리스토레티브 크림-오일이다. 피부 세포 재생의 황금 시간대인 밤을 타겟으로 한, 제품명 그대로 바로고 자는 수면 팩인 르 리프트 슬리핑 마스크는 밤사이 얼굴은 물론 피부가 얇아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목과 데콜테까지 부드럽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강력하면서 매우 간편한 제품이다. 특히 밤과 젤 타입을 접목한 독특한 밤 인(n) 젤 텍스처는 피부를 실크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상쾌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강력한 3,5-DA 성분이 개개인의 피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리프팅 효과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밤새 끊임없는 보습 작용을 통해 다음 날 아침, 숙면을 취한 듯 매끄럽고 탱탱해진 피부를 만날 수 있으며, 인색 또한 화사하게 개선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마스크는 샤넬에서 제공하는 나이트 리커버리 미샤지 테크닉을 병행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이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르 리프트 리스토레티브 크림-오일은 전체의 30%가 오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펄링 안티-링크 크림이다.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는 물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안함을 선사한다. 피부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호호바 오일, 메도폼 오일, 시아버터 추출물과 식물성 이미노산, 스킵랜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수분 보유력을 30%까지 높여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피뒀결과 피부 톤 개선, 미세 주름 완화 등 전반적으로 피부를 매끄럽게 가꿀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비타민 성분의 콜-온 & 아이 패치인 '르 리프트 플래쉬 아이 리바이탈라이저'도 선보이니 부우별로 빈틈없는 맞춤 안티에이징 케어를 선사함은 물론이다. 슬리핑 마스크는 일주일에 2~3번, 단독으로 혹은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고, 크림-오일은 매일 아침저녁 아이 리바이탈라이저 다음 단계에 발라주면 된다. 0패 르 리프트 마스크 미샤지 테크닉을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르 리프트 스킨-리커버리 슬리핑 마스크 75ml 15만9천 원, 르 리프트 리스토레티브 크림-오일 50ml 20만9천 원, 르 리프트 플래쉬 아이 리바이탈라이저 5ml, 10x2 패치 20만 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Magical firming

2013년에 후성 유전학을 바탕으로 한 리프팅 안티에이징 라인인 르 리프트를 선보이며 현재까지 리프팅 코스메틱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지켰던 샤넬 코스메틱. 2017년,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인 밤을 타겟으로 한 르 리프트 슬리핑 마스크와 각종 오일, 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르 리프트 크림-오일로, 율가를 메마르고 탄력 잃은 피부를 한층 탱탱하게 끌어올릴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sponsored by CHANEL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 맞서 새롭게 출시한 뷰티 제품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테스트 해보았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운데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엑스티시 사인 틴트스틱** 버러자 마자 마치 립밤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에 놀랐다. 보통 레드 립스틱은 바를 때 인술 각질을 잘라내기 위해 립밤으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한 후 그 위에 바로 지만, 이 제품은 건조한 인술에 바로 발라도 칼라가 부드럽게 녹아들며 생명한 색을 표현해준다. 3g 4만3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SK-II R.N.A. 파워 크림 인티에이징 크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K-II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탄력 크림. 피부 구조의 유사한 성분하고 탭핑한 라멜라 크림 제형으로, 바르자마자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 50ml 13만원대. 문의 080-023-3333 *_by 에디터 배미진*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앤디 래쉬 워터프루프 얼티 이펙트 마스크라 마스크라를 고를 때, 모양은 물론 볼륨감, 혹은 롱 래시 등 가지는 효과에 따른 솔의 모양도 중요하다. 이 제품은 무려 세 가지 면으로 재탄생 듀얼 하이브리드 브러시로, 하나의 솔로 다양한 연출 바루아가져 활용 가능해, 쉽고 빠르게 매혹적인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6ml 4만원대. 문의 02-3440-2772 *_by 에디터 이지연*

골레드보 브에 세라핌 오래도록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촉촉함이 매력적인 제품. 기초 스킨케어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는 브랜드의 대표 제품이기도 믿을 수 있다. 바르는 순간 피부 유연성을 개선해 영양분을 전달하는 텍스처로, 여러 번 덧발라도 흡수력이 뛰어나다. 피부와 뷰티 루틴에 품격을 더하고 싶은 여성에게 추천한다. 40ml 35만9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배미진*

이오레퍼미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자브 브랜드의 메인 원료인 녹차, 그중에서도 항산화 성분과 보습 성분이 절정에 이르는 한정된 시기에 수확한 첫눈 녹차를 한 통에 담았다. 질들기 전 두둑이 퍼 바르면, 그다음 날 인색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 50ml 50만원대. 문의 080-020-5757 *_by 에디터 이지연*

아베다 피코닝 캔디셔너 섬유와 캔디셔너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 끈적임이 없고 모발을 풍성해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아베다에서 사용하는 식물 성분은 89%가 유기농 인증된 성분이기도 더욱 믿을 만하다. 200ml 3만2천원.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배미진*

데코르테 AQMW 아이 크레용 눈가에 속속 타자하기만 하면 매혹적인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간편한 크레용 타입의 아이섀도. 아이라인을 그르듯 눈꼬리 끝부분에 타자해주면 선블로우면서 색은 끝날 때 마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5g 3만2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권유진*

랑콤 제.피고 더블 드림 앵콜 랑콤 제.피고 피부 개선 효과를 특별히 본 사람은 더욱, 보다 집중적인 인티에이징 케어를 도와주는 제.피고 앵콜 출시 소식은 더욱 반가울 수밖에 피부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와 선행한 피안셀을 띠는 98% 순도의 패들워 에스티 향산화 앵콜을 결합한 제품으로, 개통과 동시에 향산화 성분이 활성화되며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인티에이징 앵콜이다. 20ml 11만원. 문의 080-001-9500 *_by 에디터 권유진*

셀화수 자음생 아이 크림 드디어 출시된 4세대 자음생 크림. 출시 당시부터 오래도록 셀화수의 간판 역할을 한 제품으로, 추석 선물로 제격이다. 홍삼과 인삼 꽃에서 추출한 인티에이징 성분이 눈가 피부를 지켜준다. 진한 스킨케어 은은한 한 방 향기에서 셀화수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20ml 18만원대.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배미진*

비버리 블러시 팔레트 사용하기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핑크 플라워 패턴이 새겨진 블러시 팔레트. 이번 시즌 비버리 비스트 칼레산의 페넬라프 프론트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으로, 뷰티 마.이.라.인 주축해야 할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은은하고 미세한 핑을 함유한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로즈 핑크 칼라가 착착한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 5g 7만8천원. 문의 02-6002-3200 *_by 에디터 권유진*

포뮬러 비안테이브 글로우 액티브에이징 스무딩 세럼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지란포도의 유호 성분을 등록 담자 선택하는 향산화 세럼. 강력한 향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포도씨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독자 기술로 안정화한 비타민 C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신뢰와 호기심이 가는 제품이다. 특히 알한 비타민 C 성분의 화진물과 달리 자극을 주지 않아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0ml 6만1천원. 문의 02-6011-0212 *_by 에디터 권유진*

팬탈리온스 포트라이트 더 듀크 오 드 파퓸 영국 왕실과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속 가장 인물을 각 보물에 담겨 앞으로 표현한 재미있는 스토리의 향수 컬렉션. 일라스트레이터 크리스티아나 콜라지스가 그려낸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사자와 사슴 등 동물 모티브의 화려한 메탈 캔은 보는 즉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중 이 향은 패퍼 향이 짓든 정미와 매콤한 진, 우드의 강렬한 조화가 극도의 세련미를 풍겨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을 지녔다. 75ml 30만5천원. 문의 02-514-5167 *_by 에디터 이지연*

분다삼 시그니처 파퓸 베버리 분다삼을 단순히 창립동에 위치한 편집숍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것을 넘어,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분다삼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담은 향을 선보인 것. 모던함과 세련됨, 정제된 기품을 표현한 세 가지 향을 네모반듯한 코너색 병에 담았는데, 그중 기쁨과 가장 잘 어울리는 향으로 베버리(Verveni)를 추천한다. 세련된 우디 향과 베르가모트가 메인 향으로,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오묘한 중성적 향이 특징. 100ml 24만9천원. 문의 02-2056-1234 *_by 에디터 이지연*



한석규가 선택한 격이 다른 프리미엄 녹용 정관장 천녹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나만의 현명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청정환경 뉴질랜드 정부와 최고만을 까다롭게 고집하는 정관장이 두 번 검증한 건강한 녹용을 담은 정관장 천녹이 바로 그 해답! 배우 한석규도 선택한 천녹을 지금 만나보자. **에디터 박나영**

배우 한석규, 녹용의 대표 브랜드 정관장 천녹에 반하다.

방송촬영이 다반사인 경우에도 천녹의 효능 덕에 지치지 않고 생생한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배우 한석규. 천녹의 모델인 그는 정관장 연구원과의 대화를 통해 엄격한 원료 검증과 생산 과정을 확인한 후 천녹에 대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변인들에게 자신있게 천녹을 추천하는 이유!

한석규: 녹용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관장: 녹용은 예로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쇠약해진 사람, 뼈마디가 시리고 아픈 사람들의 몸을 보하는데 쓰여져 왔습니다.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영조도 녹용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요즘 녹용은 원산지 문제로 믿기 어려워서 피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녹용의 원산지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광복병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사슴은 엄격한 사육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녹용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정관장 천녹은 '더블태그'라는 이중 관리 시스템을 거쳐 믿을 수 있어요.

더블태그가 무엇인가요? 천녹은 뉴질랜드 정부의 인증 태그가 부착된 녹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관장의 구매전문가들이 최상의 녹용을 다시 한 번 선별해 최종 선택된 녹용에 정관장의 태그를 부착하지요. 뉴질랜드 정부와 정관장의 이중 인증.

'더블태그'를 거치기 때문에 천녹의 녹용은 믿을 수 있죠. 이는 천녹의 8단계 녹용 품질관리 기준 중 하나의 절차입니다.

8단계의 품질관리라니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 계약체결, 관리 전문 수의사에 의한 절각 및 녹용의 이력관리, 원료의 안전성 검증, 더블태그 품질 검증,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한 원료 건조, 정관장 녹용팀 구매 전문가의 건조 검증, 식약처 주관의 직수입 통관, 자체 품질 검사로 품질검증 등 총 8단계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관장 천녹이란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용을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 천녹

녹용의 효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뉴질랜드 정부와 정관장의 '더블태그' 인증을 받은 정관장 천녹을 선택할 것. 기력이 떨어진 남편, 나이드신 부모님, 체력 보강이 필요한 수험생 등 온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관리법이다.

정관장 천녹

1 **천녹정** 믿을 수 있는 녹용을 제대로 진하게 담은 농축액. 환절기나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기력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이다. 녹용의 비린 맛을 확실히 잡은 달콤한 맛이라 섭취가 용이하다. 180g*2병 45만원 2 **천녹정 에브리타임** 천녹정의 효능을 일상 생활 속에서 한 포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섭취 할 수 있는 스틱포 제품. 출장, 휴가 등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원/회복 효과를 선사한다. 10g*30포 24만원 3 **천녹론** 한 포에 정성을 들여 달여낸 프리미엄 녹용 파우치. 환절기 등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나 허약체질, 만성피로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하기 좋다. 70ml*30포/70ml*60포 26만원/48만원.

'정관장 천녹' 추석 프로모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녹의 건강을 선물하는 특별한 기회!
천녹삼(180g*2병) 구매 시 10% 할인/ 천녹론, 천녹정 에브리타임 구매 시 각 제품 5포 체험 패키지 교차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SHOWROOM



토즈



벌리



버버리



펜디



휴고보스



프리다



콜롬보 비아 델라스피카



보테가 베네타



LOEWE

로에베



로에베

다음과 전통적 가치를 담은 아이코닉 핸드백, 시티 풋 백을 새롭게 소개한다. 지난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시티 풋 백은 콤팩트한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한 채 트라폴 가넷 형태의 넓은 수납공간을 추가로 갖추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광택감이 고급스러운 크로커다일 소재를 사용해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15-2717

브루넬로 쿠차첼리 코튼 개버린 트렌치코트 브루넬로 쿠차첼리는 크리스피한 텍스처의 코튼 개버린 트렌치코트를 선보인다. 밀리터리적 영감과 브루넬로 쿠차첼리만의 감각적인 실루엣이 느껴지는 코튼 개버린 트렌치코트로 멋스러운 가을 분위기가 나는 스타일링을 연출해볼 것. 문의 02-3448-2931

로에베 2017 F/W 광고 캠페인 로에베는 '가족 장인' 명성에 걸맞은 브랜드 정신과 로에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2017 F/W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스티븐 마이젤이 촬영하고, 지젤 번천이 모델로 등장하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로에베의 대표 아이템인 해커 백부터 가족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470

벌리 애서 슈즈 벌리는 F/W 시즌 콘셉트인 '소프트 어빈' 감성을 담은 애서 슈즈를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소재에 신축성이 뛰어난 라바를 구성하여 있어 착용감이 뛰어나다. 벌리의 시그처처 이나폴라 스트라이프 패턴을 라바에 표현해 멋스러움을 더해준다. 대님 팬츠나 수트 등 어떤 룩에나 잘 어울려 스타일링이 한 걸음 더 완성될 수 있다. 문의 02-3467-8935

토즈 더블 T 사철 백 토즈는 시그처처 더블 T 디테일을 더한 새로운 디자인의 더블 T 사철 백을 선보인다. 비번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꿈꾸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아웃도어 장인이 갖든 더블 T 사철 백은 올데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더블터 탈착 가능한 솔더 스트랩과 아웃 포켓으로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문의 02-3438-6008

펜디 펜디 포 영배 캡슐 컬렉션 펜디는 박빙 태양과 함께한 펜디 포 영배 컬렉션을 공개했다. 태양의 본명인 영배라는 이름을 담은 이번 컬렉션은 재킷부터 백팩, 스니커즈 등 패셔니스타 태양의 스타일링이 담긴 아이템과 펜디 F/W 컬렉션의 핵심 테마인 펜디 보케브라리, 데이저 꽃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문의 02-726-4500

프리다 포스터 걸 프리다에서 레트로적이면서 아트적인 프린트 컬렉션, '프리다 포스터 걸(POSTER GIRLS)'을 새롭게 소개했다. 포스터 걸과 인은 로버트 맥기니스 프린트를 비롯, OMA/AMO 그룹이 아트적으로 작업한 매력적인 하어로 우연의 모험을 담았다. 자켓, 티셔츠, 자켓용 티셔츠, 스웨트셔츠, 후드 점퍼 등 총 57가지 아이템이 출시된다. 문의 02-3218-5331

버버리 DK88 톱 핸들 백 버버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DK88 톱 핸들 백 컬렉션의 스몰과 미니 사이즈를 새롭게 출시한다. DK88 톱 핸들 백은 개버린 특유의 질감을 입은 버버리의 새로운 트랜치 가족을 사용해 재구성한 스타일링 특징이다. 47가지 사이즈와 블랙, 레드, 그린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080-700-8800



브루넬로 쿠차첼리

JEWEL & WATCH

몽블랑 1858 크로노그래프 타키미터 유니크 피스 온리 워치 17 몽블랑은 올해 7회를 맞은 '온리 워치 2017'에 출품한 독특한 빈티지 워치 '1858 크로노그래프 타키미터 유니크 피스'를 선보인다. 이 시계는 1930년대의 미네르바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아, 몽블랑 컬렉션 중 최초로 브론즈 케이스에 빈티지 그린 다이얼과 그린 컬러의 악자극 스트랩을 조합한 특별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다. 문의 1670-4810

볼가리 볼가리 볼가리 로만 소르메 볼가리는 웨딩 시즌을 맞아 '볼가리 볼가리 로만 소르메 웨딩 밴드'를 제안한다. 로마의 황금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을 담아 젤스톤의 향연을 통해 인생을 즐기라는 의미를 다스금 강조하는 주얼이다. 지난 시즌 선보인 젤스톤 모델에 이어, 올해는 모던한 매력을 풍기는 다이아몬드 세팅한 버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문의 02-3479-6076

타파니 2017 가을 광고 캠페인 타파니는 개인이 아닌 독자적 스타일과 개성을 조명한 '단 하나의 나'



타파니

(There's Only One)라는 주제 아래 2017 가을 광고 캠페인을 공개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스타일과 창조적 힘은 개인과 만났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신념에 서로 다른 스타일과 개성, 창의적인 비전을 가진 6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문의 02-2015-7325

오메가 씨마스터 커맨더스 워치 오메가는 제임스 본드의 계급을 가리는 씨마스터 다이아 300M '커맨더스 워치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화이트와 블루, 레드 컬러 등 영국 해군을 상징하는 컬러가 돋보이는 스트랩이 특징. 거기에 41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라퀴드메탈 소재 다이얼 눈금과 첫 15분을 레드 바늘로 처리한 블루 세라믹 베젤을 적용했다. 문의 02-511-5797

타사키 플래티넘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타사키는 지난 8월 3일, 자연이 자닌 아름다움을 2차원적 시각으로 표현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플래티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아름다운 은방울 꽃과 웅장한 달리꽃, 미스터리한 식물을 닮은 나뭇가지 등 꽃의 아름다움을 주얼리로 재해석한 것. 플래티넘 컬렉션은 오는 9

월부터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스와로브스키 리믹스 컬렉션 스와로브스키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리믹스 컬렉션을 제안한다. 이블 아이, 러브, 스마일 이모지와 같은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크리스탈과 진주 같은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24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진 이 컬렉션은 서로 조합하고 연결해 팔찌뿐 아니라 네크리스, 초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의 1661-9060

리처드 밀 RM 037 레이디스 워치 리처드 밀은 남녀 공용이던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해설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RM 037 레이디스 워치'를 출시했다. 리처드 밀 고유한 기술적 특징과 세련한 디테일, 아름다운 우아함 등이 여성을 위한 고급스러운 기성품 워치로 재탄생했다. 문의 02-512-1311



스와로브스키

볼가리



리처드 밀



오메가



몽블랑

BEAUTY



조르지오 아르마니



라프레리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고 쿠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브랜드의 첫 번째 쿠션 팩트인 '투고 쿠션'을 선보인다. 피오네이션의 명가리는 청호에 걸맞게 혁신적인 포뮬러로 피부 위에 퍼 버리는 즉시 부드러운 벨벳 피니시를 선사한다. 거기에 강력한 커버력으로 무결점 피부를 완성하며 언제 어디서나 촉촉하게 빛나는 아르마니의 글로로를 선사한다. 문의 080-022-3332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앰플루트 컨투어 라프레리는 피부 밀도를 채워주고 무너진 라인을 되살려주는 볼류미징 크림 '스킨 캐비아 앰플루트 컨투어'를 출시한다. 브랜드의 아이코닉 라인인 캐비아 컬렉션의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 제품은 고농축 캐비아 오일과 캐비아 프로틴을 결합해 꾸준히 바르면 잃어버린 얼굴의 윤곽과 볼륨을 되찾아준다. 문의 080-511-6626

샤넬 가브리엘 샐 샵 샵 샐은 15년 만에 새로운 이름과 보틀로 태어나 태양 빛을 머금은 플로럴 계열의 향수인 '가브리엘 샐 샵' 향수를 출시한다. 샵 샵 향수의 역사에 기록된 각종 플로럴 노트를 바탕으로 일랑 일랑과 재스민, 그리고 오렌지 플로르를 시작으로, 그라스 투베로즈를 더해 상상 속의 꽃, 이상적인 화이트 플라워 향으로 탄생시켰다. 문의 080-332-2700

시슬리 시슬리아 랭데그랄 안티아주 아이 앤 립 콘투어 크림 시슬리는 행동 노화까지 케어하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접목한 시슬리아 랭데그랄 안티아주 아이 앤 립 콘투어 크림을 소개한다. 쏠쏠하고 잘 밀리는 텍스처와 벨벳 같이 매끄러운 마무리감이 특징이며, 주름과 부기, 다크서클을 비롯해 입 주변의 주름과 미세 라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문의 080-549-0216

콜레드보 보베 르세렘 콜레드보 보베는 피부 본연의 힘을 이끌어내 내연의 광채를 깨우는 '르세렘'을 소개한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앤비 래쉬 컬렉션 듀얼 하이브리드 브러시 에스티 로더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세 종류의 마스크라 효과를 볼 수 있는 퓨어 컬러 앤비 래쉬 컬렉션의 새로운 듀얼 하이브리드 브러시를 소개한다. 세 가지 면으로 제작된 브러시는 어떠한 메이크업 룩에나 잘 어울리는 이지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40-2772

시세이도 인크스트르크 아이라이너 시세이도는 캘리그래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새로운 인크스트르크 아이라이너를 선보인다. 독특한 질 포뮬러 제품으로, 정교한 라인과 깊은 컬러를 표현해준다. 텍스처가 부드러우며 한 번의 스트로크(터치)로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블랙과 브라운을 포함한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073

콜레드보 보베 르세렘 콜레드보 보베는 피부 본연의 힘을 이끌어내 내연의 광채를 깨우는 '르세렘'을 소개한

콜레드보 보베 르세렘 콜레드보 보베는 피부 본연의 힘을 이끌어내 내연의 광채를 깨우는 '르세렘'을 소개한

FASHION